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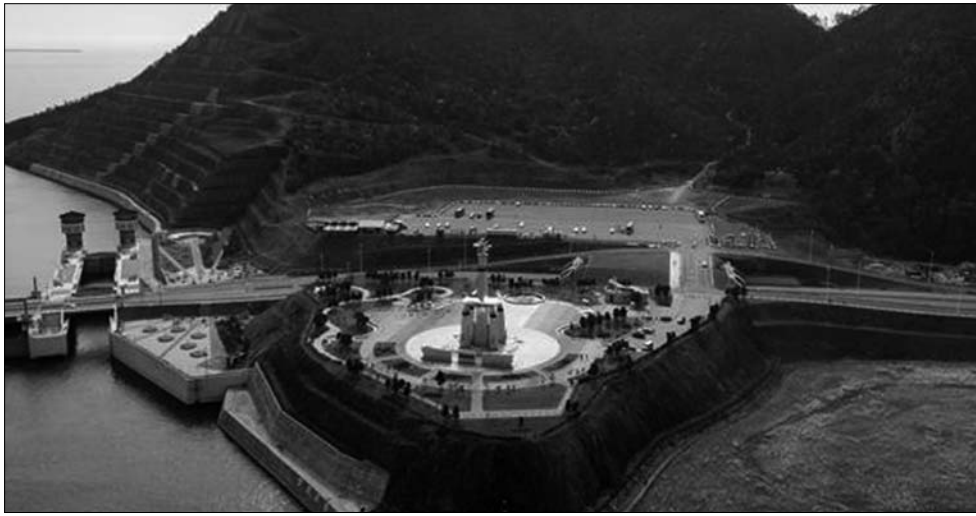
지역 소식통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이영은 교수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회장 선임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식품영양학과 이영은 교수(사진)가 사단법인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017년도 신입회장에 선임됐다. 1991년 창립된 동아시아식생활학회는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식생활 식품조리, 영양 식품 및 의식산업 분야에 있는 600여 명의 회원이 학문적 교류 및 연구 활동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와 함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를 연 6회 발간하고 있다.



이영은=중앙원기자



군산시, '바다의 날' 본격 준비 돌입

해양산업 발전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가 '새만금과 바다,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개최하는 '제22회 바다의 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바다의 날'은 UN의 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민에게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진취적인 해양 개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1986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군산시가 전북도에서는 최초로 바다의 날 개최지로 선정됐다. 군산시는 바다의 날 개최로 새만금 신항 조성 등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을 통해 환황해권 국제 물류 거점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21세기 신 해양산업 발전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비전을 밝혔다. 시는 해양수산부, 전북도, 해수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새만금 국제모트대회, 수산학술대회, Sea-Food 경영대회 등 다양한 해양산업 발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해상 레저체험과 수상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해양 안전체험관 운영과 바다와 섬을 보며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잔치, 신시도 수산물축제와 활어잡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를 통해 새만금에서 개최 예정인 제1회 노마드 축제를 바다의 날 주간과 연계 추진해

바다의 날 체험행사와 '캠핑축제'가 어울려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특별한 축제의 장으로 조성해 관광객에게 추억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는 신시관광 주변에 대규모 새만금 유채꽃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바다의 날 기념식에 2천여명의 관계자가 군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항 118주년의 항구도시와 새만금을 전국에 홍보해 바다의 중요성과 해양수산업의 미래 비전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수산업 발전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비전을 밝혔다. 시는 해양수산부, 전북도, 해수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새만금 국제모트대회, 수산학술대회, Sea-Food 경영대회 등 다양한 해양산업 발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해상 레저체험과 수상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해양 안전체험관 운영과 바다와 섬을 보며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잔치, 신시도 수산물축제와 활어잡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를 통해 새만금에서 개최 예정인 제1회 노마드 축제를 바다의 날 주간과 연계 추진해

이영은=중앙원기자



코레일 전북본부, 주니어보드 발대식

코레일 전북본부는 지난 7일 오후 본부회의실에서 본부장 및 각 처장, 전임의장들과 올해 주니어보드(JB)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제10기 주니어보드위원 위촉장 수여, 전임(17·9기)의장단과 상견례 및 집임 주니어보드 위원 축하인사, 본부장 격려말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도 주니어보드 운영방향에 대한 공유와 주요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에 선발된 15명의 전북 주니어보드는 신입직원에서부터 10년차 경력직원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와 직급으로 구성되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지닌 직원들로 평가되어 코레일 전북본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으로 기대가 된다.

이영은=중앙원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농지매매·임대사업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이춘성)는 총 사업비 93억2,200만원을 투입, 군산지역 농업인들에게 농지매매, 임대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별 지원현황은 전업농 2,000세대, 64세 이하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에 43억2,200만원, 과수전업농 지원·육성을 위한 과원규모화사업에 4,300만원, 농업 부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회생사업에 30억2,4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고령·질병·은퇴·이농으로 인해 농지 관리가 힘든 농업인의 농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는 매입비축사업으로 19억3,300만원을 지원하며 경영이 안보조금 12ha, 농지연금 28세대, 임대수탁 118ha를 지원한다.

이영은=중앙원기자

군산 즐거운유치원 원생들
소통동 주민센터에 백미 전달

군산시 나운동에 위치한 즐거운유치원(원장 조영례) 원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지난 7일 소통동 주민센터에 백미 120kg을 전달했다. 경제 한파와 추운 날씨로 인해 험준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원생들이 쌀을 모아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조영례 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쌀을 모아 나눔 활동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성숙한 사회인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성규 소통동장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영은=중앙원기자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프라임사업단은 교내 WM관에서 '창·취업 PRIME사업 연계 산·학·연·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도종 총장과 진흥 전북 정부부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김진수 전북청장경제혁신센터장을 비롯해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회 이업종교류회 등 정관계 및 기업 관계자와 원광대 프라임사업 참여 학과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포럼에 앞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 유도와 원광대의 농·생명 & 스마트기계·소재 산업 인력양성 프라임 사업이 구현하는 목표 성취

및 지역인재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1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 산·학·연·관 상호협력 조인식이 열렸으며, 프라임 사업추진 및 창·취업 방향설명회와 함께 최봉민 오디텍 대표이사, 김대중 전북도위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포럼에서는 선군관대 최재봉 교수의 '포노사피엔스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다. 김도종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전환점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 사회,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대차이 주도하기 위해 유관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 상호 끊임없이 소

통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정보공유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에서 주최하고, 원광대 프라임사업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교육부와 익산시 등 기업 및 유관단체 후원으로 열렸으며, 원광대 프라임사업단은 이날 전북청장경제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익산상공회의소 등 산·학·연·관 13개 기관과 MOU를 체결함에 따라 향후 이를 기반으로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은=중앙원기자

전북농기원 최인영 박사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 소속 최인영 박사(연구관)(사진)가 세계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6년 판에 등재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최인영 박사는 영농현장에서 얻은 연구결과를 농가 현장기술 지원 및 영농활용에 적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고품질 신종 병해충을 식물병리분야 국제학술지(SCI급)에 매년 10여편 이상 게재하여 연구성과가 극대화하여 기여하였으며, 그동안의 업적을 인정받아 인명사전에 등재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최인영 박사는 2000년도에 전북대학교 농생물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는 영국 국제원예연구소(HRI)에서 버섯 바이러스 진단과 관련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2016년부터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겸임교수로

신속진단 기술 및 생물방제 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여년 동안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면서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농가 컨설팅을 강화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저변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흰가루병, 점무늬병 등 신속진단 예측시스템 개발 및 방제수준을 설정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오크라, 차오예 등 아열대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기술을 체계화했다. 향후 농업기술원에서는 지속적인 우수인력 역량강화 및 연구 기반 조성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농업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농업기술 개발 및 대응 현장지원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농가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은=중앙원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취약아동 발굴 주력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오는 5월까지 27개 읍면동을 비롯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 취약아동을 발굴한다. 이번 취약아동 발굴은 복지 사각지대와 서비스 거부 및 복지 중지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아동을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것. 드림스타트 담당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가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어린이집 전담제를 실시해 기관 방문을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례 상담으로 신규 아동을 발굴해 건강 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내달까지 27개 읍면동과 51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신학기에 발생하기 쉬운 사각지대 아동 발굴을 실시하

고 5월까지 2만400여개 보육시설에 대해 드림스타트 사업안내와 함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아동 복지체계 구축으로 위기아동에 발 빠르게 대처할 방침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어린이행복과에서 3월 말까지 발굴을 통해 이루어지며 연중 개발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을 우선 선정하며 내달까지 인적조사와 양육환경 및 아동양육발달 등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회의를 통해 결정된 후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은=중앙원기자

익산시-코레일 전북본부, 익산역 활성화 업무협약

익산시와 코레일 전북본부는 8일 오전 익산시청 회의실에서 익산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장영철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은 전라북도 거점역으로서 익산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10일 오전 7시부터 익산역 서부주차장을 철도이용객에게 24시간 무료 개방하게 된다. 철도 이용객들은 출차 시 열차승차권을 제시 고객 확대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업인 실용교육은 영농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재배기술교육과 함께 2017년 주요 농정시책, 주요작물 생산·유통현황 등 최신 농업정보와 생계기반 안전사용요령 등 농업인에게 유용한 양질의 교육으로 이뤄진다. 또한 지역의 주요 생산 작물인 식량작물과 고추, 참깨 등 원예작물, 드론 등 무인 비행체, ICT 융복합 정밀농업

용역 수 증가에 대비해 지난해 9월부터 주차장 무료개방을 협의해 왔으며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하면서 이번 협약이 성사됐다. 최근 중앙지하도, 서부진입대로 확장공사가 이어져 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익산역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익산역의 전라북도 거점역으로서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로써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혁신도시 지역 시설 고숙열차 정차요구 논란도 종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영은=중앙원기자

군산농기센터, 12개 읍면동 순회 농업인 실용교육

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는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17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다. 시는 농산물 수입 확대, 기후변화 등 세계경제 질서의 불확실성 증가로 농업을 둘러싼 어려운 대외환경을 극복하고 비용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고객 확대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업인 실용교육은 영농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재배기술교육과 함께 2017년 주요 농정시책, 주요작물 생산·유통현황 등 최신 농업정보와 생계기반 안전사용요령 등 농업인에게 유용한 양질의 교육으로 이뤄진다. 또한 지역의 주요 생산 작물인 식량작물과 고추, 참깨 등 원예작물, 드론 등 무인 비행체, ICT 융복합 정밀농업

농업인 실용교육은 영농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재배기술교육과 함께 2017년 주요 농정시책, 주요작물 생산·유통현황 등 최신 농업정보와 생계기반 안전사용요령 등 농업인에게 유용한 양질의 교육으로 이뤄진다. 또한 지역의 주요 생산 작물인 식량작물과 고추, 참깨 등 원예작물, 드론 등 무인 비행체, ICT 융복합 정밀농업

이영은=중앙원기자